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cok.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f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김 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효주 (투스 평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44.918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이사 11,1-10

화답송



(후렴) 주 - 님, 이 시대 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 소 서.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흡수를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로마 15,4-9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굳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복음 마태 3,1-12

성가	입 당	91	예물준비	221
	영성체	180	파견	93

미 사 봉 헌

연미사

김영우 요셉, 강건대 마리아 부부
 양세양 요셉
 김학순
 남해순 카타리나
 한시찬 라파엘
 한시찬 라파엘
 한시찬 라파엘
 한시찬 라파엘
 김영복 아녜스 영혼(기일 맞아)
 김영복 아녜스 영혼
 김준일 베드로 영혼(기일 맞아)

생미사

김흥기 안드레아, 여경진
 김진열 신부, 김효주 수녀
 이로진 요한, 이윤희 사라 가정

봉헌

김지영 유스티나
 박알버트, 아그네스
 박혜화 도미니카
 민덕미 안젤라
 박알버트, 아그네스
 연령희
 한안나, 서희데레사
 윤요한, 루시아
 김애희 테클라
 이경자 울리안나
 김애자 헬렌

봉헌

이영애 레지나
 익명
 이미숙 안나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1	복사2
12월 4일	이영노 울리안나	김규현 프란치스코	정유진 콘솔시아	정유진 콘솔시아	이영혜 안젤라	양지수 글리라	최예준 사도요한
12월 11일	백이백 아오스딩	민완준 필립보	이경자 울리안나	이경자 울리안나	김종선 비비안나	김민규 요셉	양지수 글리라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성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견진 교리	매주 주일 11:00
예비신자교리	매주 주일 11:00

12월 영명일 맞으시는 교우분들! 축하드려요~ '▽'

12.2 비비안나 12.3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12.6 니콜라오, 아셀라
 12.7 암브로시오 12.8 성모 마리아 12.9 요한 디다코(후안 디에고)
 12.11 다마스 12.13 루치아, 오틀리아 12.14 십자가의 요한
 12.25 아나스타시아 12.26 스테파노 12.27 사도요한
 12.29 다윗, 토마스 베케트 12.31 실베스테르

미사 후 친교 모임

주일 미사 직후 친교실 : 대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형제애를 계속 실천하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다"
 히브13,2

한인공동체 설립 25주년 기념 사랑의 음악회

2/4(일) 오후 2시~ 4시, 대성당

<대림시기 교우분들의 자세>

우리 마음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선행과 기도, 실천으로 대림시기를 지냅니다.

1)대림시기 고해성사

고해성사 장소: 평일 오전, 오후는 신부님 사무실
 주일은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고해성사는 하느님의 선물을 받는 '사랑의 성사'입니다. 대림 시기 중
 에 이 성사를 통해 내 마음의 방인 영혼이 깨끗이 정화되도록 합시
 다. 마음의 문을 열어 하느님 사랑의 선물을 받으세요♡

2)대림시기 공동실천 사항

- 1)주일미사에 09시까지 성당에 도착합니다. 다함께 성경말씀을
 봉독하며 미사전 마음준비 합니다.
- 2)코리아 컨퍼런스룸은 소그룹 기도, 교육, 만남의 소중한 공간입니다.
 날을 정해 대청소와 새단장을 하며, 방 사용후 꼭 뒷정리 합시다

연령회 송년모임

12/11(일) 두 번째 주일, 11:00 대미아노 홀
 연령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봉성체 신청

교우분들 주변에 '몸이 편찮으신 분', '연로하셔서 주일 미사에
 못오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모실수 있도록 관심가져주시고 도와주
 셔요!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신부님께서 매월 첫째주 목요일 방
 문하여 영성체와 안수를 해드립니다. *신청: 사무실
 347-834-5784

청년회 새신자 등록

문의: 청년회장 양정운 썬마 카톡 ID:Jcy258
 Email: Jclara.yang@gmail.com 또는 청년회 신자등록 큐알 코
 드에 접속후등록



새 청년신자 분들은 큐알 코드로 신자 등록을
 하시고 본당 행사와 청년 단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신청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09:15) 유아세례 드립니다.
 *신청: 사무실

미사때 성가를 부릅시다!

미사중에 함께 마음을 모아 성가를 부릅시다! 성가를 정성껏 부르
 는 동안 우리는 깊은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설레는 마음
 으로 미사에 참여합시다!



온 누리에
촛불 밝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자연을 존중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함을 아는
참 아름다운
우리 되게 하소서



대림 2주

‘메시아의 시대’

그날이 오면,

메마른 식물들이 되살아나고, 동물들이 양육강식의 체계를 벗어나 평화롭게 살아간다고 제1독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날을 위해,

세례자 요한은 이천년 전 저 멀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mt3,8라고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권고합니다.

그날이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생명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또 우리 모두가 메시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와도,

생명과 평화를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이미 오시는 그분을 알아 뵈지 못하고 또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도록,

‘한마음 한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 Rom15,6 우리는 깨어 기다립시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날이 오면 실현되는 하느님의 생명과 평화를 고대합니다. 오늘의 우리는 메시아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도록, 메시아의 시대가 빨리 오도록. 윤 정현 신부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순한 루시아, 김옥지 아가다, 이경희 미카엘라, 김동희 헬레나, 정창동 폴리나, 지군자 스테파니, 진정은 마리아, 이진자 세실리아, 고종호 마테오, 이병국 요한, 이경봉 요셉그레고리오, 박명순모니카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ISC NEW YORK
International Student Consulting
졸업/OPT 후 진로고민 및
진학/취업/자기소개서/면접준비 무료상담
iscnewyorkmetro@gmail.com
1-917-386-7405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원조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212-594-7773
646-808-7322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nycacu

광고주를 찾습니다

광고주를 찾습니다